

## KB금융, 칼라일 그룹서 2400억 유치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 제휴  
양사 네트워크 활용, 신규투자 창출

KB금융그룹은 18일 글로벌 투자 회사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과 아시아 역내 바이아웃 펀드인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 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투자 기회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칼라일의 국내외 투자 관련 KB금융의 구조화 금융 및 자금조달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KB금융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칼라일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칼라일은 KB금융이 보유 중이던 자사주를 활용해 발행하는 교환사채에 2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 선도 투자 기업인 칼라일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등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창출과 함께 KB 글로벌 부문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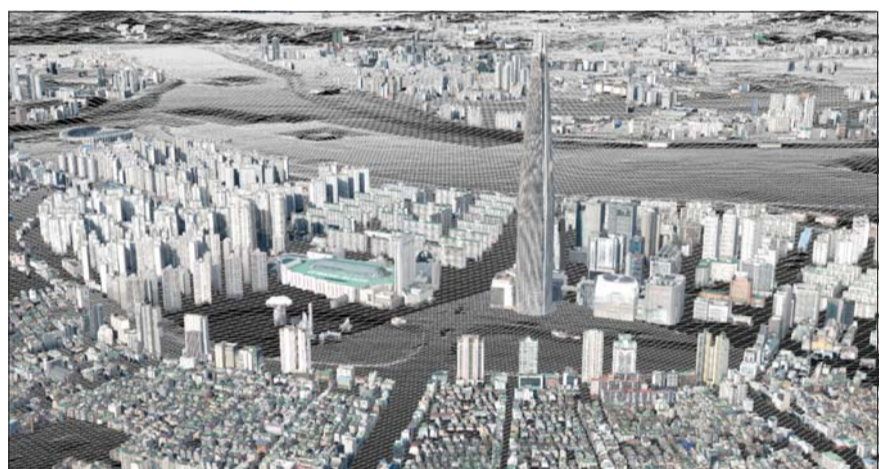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보하고 있는 KB금융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칼라일이 신규 국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한국총괄대표는 “한국 시장에서 KB금융은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며 “안정적 성장과 견고한 관리 역량,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KB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하강 국면 하에서도 우수한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표는 “칼라일은 한국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KB금융과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3D 지도.

/네이버

## 항공사진 촬영 규모만 2만5000장 네이버랩스, 서울 전역 3D 모델링

서울시와 협력, 건물 60만 동 구현  
자율주행 이동 가능한 수준 정밀도

네이버랩스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을 3D로 모델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D 모델링은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차량이나 로봇 같은 머신들이 실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정밀도를 지니고 있어, 기술 기반의 미래상을 더욱 앞당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이버랩스는 서울시 전역을 3D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과 항공사진 처리 기술을 결합했다. 각기 다른 위치의 하늘에서 촬영한 대규모 영역의 2D 이미지들을 시점 차이 없이 정밀한 3D 모델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3D 모델링에는 605km<sup>2</sup> 규모에 해당하는 서울시 전역과 해당 지역 내 건물 60만 동이 모두 구현되어 있으며, 촬영된 항공사진의 규모만 2만5000여 장에 이른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

는 네이버랩스의 자체 기술을 활용해 대부분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네이버랩스는 해당 데이터를 통해 도로 위 배달로봇·차량을 위한 HD맵을 고도화하고, 향후 더 경제적이고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는 매핑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네이버랩스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환경인 버추얼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심의, 도시바람길 시뮬레이션, 사물인터넷(IoT) 센서 소방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최신화면 3차원 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이번 3D 모델은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을 위한 대단위 HD맵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 수준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 플랫폼 넘나드는 이모티콘 시장

# 라인프렌즈 캐릭터, 카톡 속으로

‘BT21’ 캐릭터, BTS 협업 탄생  
디테일한 표정, 트렌디한 멘트  
카카오 캐릭터 일찍이 라인 진출

카카오 캐릭터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메신저의 이모티콘으로 등장하고, 라인 캐릭터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되는 등 캐릭터 분야에서도 ‘적과의 동침’이 이어지고 있다.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경쟁사 플랫폼에도 출시해 인지도와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프렌즈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BT21’을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16일 출시했다. 라인프렌즈와 방탄소년단(BTS)의 협업으로 탄생한 BT21은 라인 메신저 스티커로 첫 선을 보인 후 다양한 제품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BT21은 지난 2018년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모티콘을 출시한 바 있지만,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개로 구성된 ‘우주스타BT21 텐션 충전’ 이모티콘은 BT21 특유의 귀엽고 디테일한 표정과 일상에서 쓰기 좋은 트렌디한 멘트로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친 용어)는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



라인프렌즈가 출시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라인프렌즈

를 끌고 있다. 출시 하루 만인 17일 오전 전 연령대 인기 이모티콘 1위에 올랐으며 18일 오후 3시 기준 3위다.

라인프렌즈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을 주로 쓰는데 글로벌 인기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BT21 캐릭터를 더 많은 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모티콘 출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캐릭터도 라인 메신저에 일찍이 진출해 판매되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일본의 라인 메신저에 지난해 7월 입점해 인기를 끌고 있다. 총 15종이며, 일본 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에 카카오의 캐릭터가 진출한 것

을 의미 있는 행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2018년 12월 카카오프렌즈 글로벌 첫 매장을 캐릭터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 열면서 일본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카카오는 기존 캐릭터 상품 위주의 스토어와 달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라인 메신저에 카카오톡 캐릭터 입점을 통해 카카오프렌즈 IP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인지도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다른 IP를 통해 라인 등에 들어갈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품질서류 조작’ 메디톡신, 결국 시장 퇴출

메디톡신 신뢰도 등 타격 불가피  
식약처 “제품 안전성은 문제 없어”

국내 첫번째 보툴리눔 독신 제제이자, 시장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메디톡신의 퇴출이 결정됐다. 지난 2006년 허가를 받은 지 14년 만이다. 메디톡신은 전체 매출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주력 품목을 한꺼번에 잃으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신 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일자는 오는 25일로,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여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메디톡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이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



메디톡신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

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독신 제제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조치로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메디톡신의 내수는 540억원, 수출은 620억원 규모로, 한해 매출액의 26%, 30%를 차지한다. 메디톡신은 여전히 메디톡신 200단위와 필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메디톡신은 식약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균주 유출 여부를 가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

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메디톡신은 대응계약이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가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를 만들었다면 대응계약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예비판정은 지난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이번 식약처의 조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식약처는 다만 품목허가를 취소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안전성은 문제 없다며, 기존 사용자들을 안심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